

# 보는 게 없이 보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그냥 애원을 하거든요. 애원을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성 안으로 밥 얻으러 간 어머니가 오백 년이 되도록 안 나온다는 겁니다. 허허하... (대중 웃음)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어떤 땀 웃음이 나오니까. "스님께선 꼭 그러하실 수 있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성 바깥에서 이렇게 빼돌려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일러 달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오백 년이 되도록 밥 한 숟갈 얻지 못해서 빼돌려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어 나가지 못했노라고 일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허허하... 그래서 그 스님께서 탁발한 밥을 좀 나눠 줘서 먹이고 나니까 아, 상상해져서 바깥으

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신다면 마음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달나라에 가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또는 시시각각으로 화해서 나투기도 할 수 있고, 진디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면 한마음이 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발이다! 지렁이가 밭이 없으면 지렁이가 밭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서 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만 올랐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귀신이 됩니다. 허허하... (대중 웃음) 그리고 또, 모자라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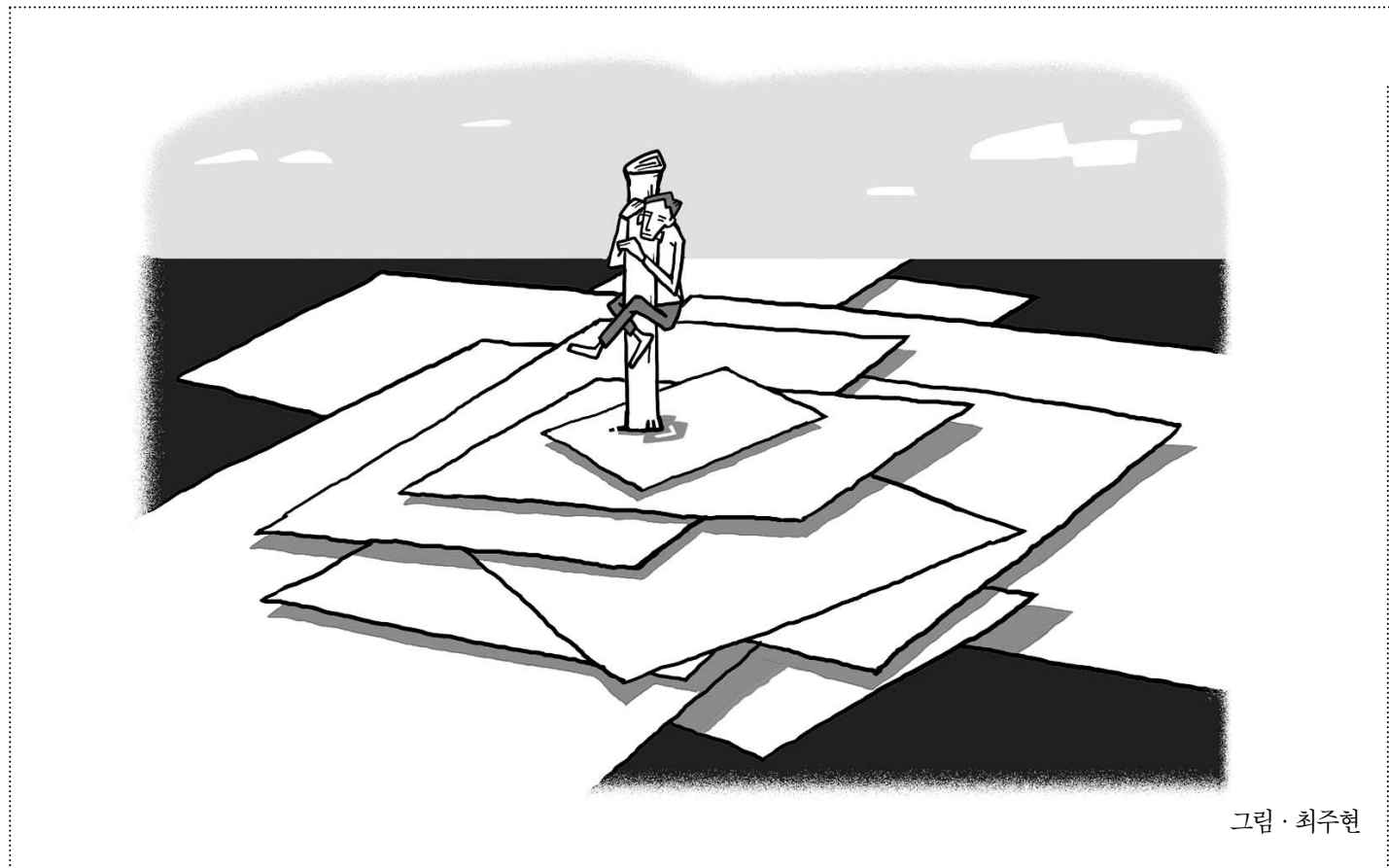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하다못해 멧돌을 하나 돌리려 해도 심봉을 꽃아야만 굴릴 수 있습니다!

로 나와 가지고 그만 상봉을 했죠. "아들과 어머니가 천지가 상봉을 하듯이 상봉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아까 왜 우셨습니까?" 하니 "하도 애원을 하는데 불쌍해서 그랬느니라." 이라고, "웃음은 왜 웃으셨습니까?" 하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글쎄 이것 좀 들어 봐라. 내가 전자가 입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 내 자식놈이 밧목을 쥐고선 그냥 못 가게 해 가지고, 나 죽이고 떠나라고 하도 그렇기에 그냥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서 사대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입산을 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아, 가다 보니까 그 참새가 바로 과거의 내 아들 녀석이 아니더냐?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웃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모두가 비유해서 말해 놓은 것이지만,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받을 못 보니까, 못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 얘기만 한 거죠. 그래 뭘은 성 밖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했더니 말입니다. 허허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공부야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

함이 없이 여러분의 그 괴로움을 털어 주고 같이 해 주고, 아픔도 내 아픔과 같이 해 주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공부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학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해 봐도 공력이 안됩니다. 과학도 지금 물질과학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멧돌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 심봉을 꽃아야 멧돌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멧돌에 넣고 가는 것도 심봉을 꽃아야만 굴립니다. 그런데 심봉도 안 꽃고선 '갈려 나와라, 갈려 나와라.' 하고 바깥으로 쳐들고 빙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게 어떻게 공력이 돼서 갈려 나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모두가 실상의 그 실천을 그대로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필수공공법으로... 허허하, 모두가 이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죠. 그러면 다 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있어야 살아 나오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없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의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온통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엇그저께도 내가 그랬지만 거미줄에 엮

힌 밧목을 빼지 못해서 애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미줄이 됩니까? 그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섞이지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 잘못 가면 뭐가 잘못된다고 해서 낱짜를 생각을 안 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잖은가.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공합이 따로 있습니까? 만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서부터 큰 거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꼴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난 데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먹는 것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딱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저 내의 거절을 것만 보지 마세요. 나가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걸 보면 거절은 대로 거가다가 멀어져

고 보는 게 없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듣는 게 없이 들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잘못된 것도 내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로 뭉쳐야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죠. 모두 여러분이 앞장서서야... 우리가 지금 속은 비고 걸만 꼭 차 가지고, 지금 정치도 모두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아니라, 속이 텅텅 빈 나라가 되는 것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청정한 나라입니다. 반발을 만하고요. 남의 거 거저먹지 않겠다는 사상 말입니다. 그전에 어려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건을 점시에다가 담아가면, 그 점시를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보여라도 그렇고요, 또는 밥을 먹어도, 물론 불교의 발우공양에서 배워 간 공기밥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탓이 적고요. 악랄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랄하게 하면 했지 탓은 안 한다 이겁니다. 허허하... (대중 웃음)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렇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수박을 놓고 "이게 뭐고?" 하고 돌아가지 말고 같이 있으면 칼로 딱 잘라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세에 그 수박씨가 다시 나와도, 수박으로 다시 나와도 여전히 그 맛은 알 겁니다. 지금 한 생애에 살아 놓으면 세세생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 놔야 요다음의 생애에서도 또 평평한 열면 그냥 모두 술술 나오죠. 그래야 세세가 평평해지고 모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평등해지려고 합니다. 허허하...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스님: 예, 하여튼 여러분 정신을 남한테 헐기 않도록 하시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길 바랍니다.

(법회의실을 모두 마친 후) 모두 한마음의 성불을 위해서... (합장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대중: 일동 고맙습니다.

※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만성두통 경향통 오십견 요실금  
구완와사이명비염중이염척척  
아토피피부염 유포 좌골신경통(디스크)  
풍치 무릎관절통 손 발목관절통 만성체증  
비결 침술로 1회~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기 전문의가 될 수 있다

**비법강좌**

- 일시: 11월 25일 오후 5시부터 ~ 11월 26일 (숙식가능)
- 보시금: 일백만원 (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오시는길: 공주시에서 청양가는 길 13km   
오서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552-2159

### 간(肝)의 건강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다 물,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지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훈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속농원)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유방한의원 의 윤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방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마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초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